

중국 내 한인의 초국가적 이주와 종족공동체의 형성 및 변화: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 사례 연구*

이윤경**, 윤인진***

<목 차>

1. 서론
2. 현지조사
3. 한인의 초국가적 이주
 - 3.1 한국인의 베이징 이주
 - 3.2 조선족의 베이징 이주
4. 초국가적 종족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5. 결론

1. 서론

한중 수교가 맺어진 1990년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치열해지는 기업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에 생산 설비를 갖추는 지구적인 생산에 돌입하였다. 이념적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경제개혁을 감행하는 구 공산권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저렴한 노동력과 공장시설을 제공하는 생산기지로 자리하게 되면서 막대한 자본이 구공산권 국가로 이동하였고 국가 간 특정형태의 공생관계와 이주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251).

** 주저자. 臺灣 中央研究院 社會學研究所

*** 교신저자. 高麗大學校 社會學科

한중 수교는 정치적인 공식외교 관계의 수립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는 한중 간 무역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인 동기가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한중 수교를 통해 한중 간 국제 무역과 통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자본의 초국가적 이전이 용이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국자본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모색하던 시기였고,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중국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초국가적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중국지역으로 생산과정의 공간적 전환과 팽창을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무역이 증가되고 한중 간 기업가가 양산되고 순환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순환이주는 초국가적 기업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은 한인에게 이주를 통한 새로운 생애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 자본의 중국 투자는 중소기업의 진출로부터 시작하여 한상(韓商)이 초기 이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대기업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상당수의 한국인 주재원들이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에서 베이징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요도시로 유입되었다. 특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본부기지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베이징으로의 한인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었다.

한중 간 인구 이동은 모국 자본의 중국 이전과 맞물려 대규모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한인이주사의 큰 획을 긋게 하였다. 또한 중국으로의 한국인 이주는 전통적인 국제이주이론들이 예측하는 인구이동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기존의 국제이주이론들은 이주를 유입-유출요인에 의한 개인 이주자의 경제적 선택으로 보는 경제학적 접근, 세계체제론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인 선택이나 동기에 따른 이주 평형이론의 한계를 인식하여 보다 거시적 차원의 기회나 구조를 고려하는 역사-구조적인 접근, 노동시장을 고숙련-고임금의 직종과 저숙련-저임금의 직종의 분절화로 보는 이중노동시장접근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Massey

et al., 1993). 이러한 이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자원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이주 경향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990년대 중국으로의 한국인 이주는 국가 간 경제적 위계나 자본의 이전방향을 고려해볼 때 전통적인 이주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베이징으로 이주한 한인의 이주 흐름과 특성에는 조선족과 한국인 간 차이가 있어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이주라 하더라도 동베이 3성의 조선족의 국내 인구이동과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국제인구이동을 전통적인 이주이론으로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인의 이주는 한중 간 국가의 경제적 위계에서 반주변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의 이주 흐름을 보여 전통적인 이주 흐름에 역행되는 역이주(reversed migration)의 특성을 갖는다. 반면 조선족 이주의 초기 이주 조건을 보면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기회와 임금차이에 따른 전통적인 이주특성을 보였다. 특히 조선족의 이주는 모국 자본이 산출하는 종족 경제 속에 배태되어 있어 모국 의존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윤인진, 2004; 박광성, 2006; 예동근, 2009; 정종호,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조선족과 한국인의 각기 상이한 이주의 속성이 동일한 종족성을 공유하는 동족 집단 내 조선족과 한국인 간 관계를 특징짓고, 동족 집단 간 공생관계의 터전인 한인 종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의 거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은 현재 내부적으로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인 종족공동체 형성 이후 조선족과 한국인의 공생관계가 점차로 약화되고, 한인밀집 거주지가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종족 공동체는 분산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지역의 한인 종족공동체의 속성을 이해하고 종족 공동체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한인밀집 거주지의 분산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주국에서의 이주자의 거주지 변동은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민족관계의 변화

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오랫동안 학계에서 연구되어왔기 때문이다 (Massey, 1985; Zhou and Logan, 1991; Alba and Logan, 1993; Alba and Nee, 1997; Fang and Brown, 1999, Min, 2008).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의 국내이주와 한국인의 초국가적 이주의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종족공동체의 형성과 변화의 양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현지조사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는 베이징 왕징 거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 수집되었으며, 정부간행물의 연도별 자료, 신문기사 아카이브 등 문헌자료를 통해서 현지조사의 현재적 자료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주저자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걸쳐 베이징의 왕징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면서 한인 종족공동체의 참여관찰을 시작으로 해서 심층면접을 위한 질문문항을 설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자료 수집은 2012년 7월~8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설문 문항과 연관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왕징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한국인과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과 조선족의 면접은 때에 따라서는 각 개별적 이주과정의 상이한 만큼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심층면접은 전체 연구에서는 재중 한인 20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문의 분석에 인용된 조사참여자들은 한국인 12명, 조선족 9명, 한족 1명 등 총 22명이다.

3. 한인의 초국가적 이주

3.1 한국인의 베이징 이주

베이징으로 한국인 이주 유입의 흐름이 뚜렷이 나타난 시기는 대기업의 베이징 진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의 시기이다. 2008년에 예정된 올림픽의 개최지가 베이징으로 결정되면서 베이징 시는 2000년 초반부터 도시 발전의 일환으로 베이징 지하철, 고속도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선진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런 건설 사업에 한국의 대형 건설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에 동반되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2년에 베이징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사무실 공간, 현지컨설팅 등 초기 기반시설과 판촉활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다.¹⁾ 또한 이 시기에는 2001년 중국 WTO 가입이 확정되어 중국 진출을 막아 온 그간의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국 열풍은 대기업 주재원, 유학생, 자영업자 등 여러 다양한 이주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재 점화되어 한국인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빠르게 증가했다.

베이징 시의 한국인 유입 흐름에 대해서 재중국한국인회는 이주 시기에 따라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인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한다.²⁾ 이러한 세대 구분은 시기별로 모국과 거주국의 상황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베이징 이주의 배경과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1세대는 한중 수교 이후에 베이징에 이주한 소규모의 한국인 집단의 특성을 띠었다. 이후 한국이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1) 머니투데이, 2002년 5월 15일자.

2) 재중국한국인회 방문 인터뷰 일자, 2012년 7월 25일.

를 겪으면서 소자본을 가지고 베이징에 진출하여 숙박업, 여행사, 음식점 등의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탈출의 특성을 보이는 2세대가 유입되었다. 3세대는 2000년대 외국인에 대한 중국 내수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 대기업이 활발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들어온 한국인들을 일컫는다.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1990년대의 이주 1세대와 2세대의 경우에는 베이징 내 한국인의 이주 규모가 크지 않았고 생산가공형과 생계탈출형의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3세대가 이주한 시기는 한국 기업의 베이징 진출 양상이 본격적이고 가시화된 시기로 베이징에 한인 밀집지역인 왕징이 발전되는 시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1992년에 수교가 되었잖아요. 1997년에 IMF가 닦쳤잖아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생산기업의 진출이에요. 생산 가공형이에요. IMF이후의 2002년도까지는 중국에 진출에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탈출이었어요. 한국에서 명퇴를 당하던가, 사직을 하던가, 회사가 망하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과 중국을 왔다가는 페리호에서 보따리상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돈 1, 2억 들고 와서 여기서 식당 차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죠. 그게 중국 진출 2세대고, 3세대는 2000년대 외국인의 중국 내수시장이 개방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같은 게 바뀌어가면서 한국의 중견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면서 들어온 게 그때부터예요. 지금 대기업들은 다 그때 들어왔고, 중견기업도 그때 들어왔고...”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장)

대기업의 본격적인 베이징 진출에 맞물려 들어온 3세대 한국인들로 인해 베이징에 거주하는 대기업 근무자나 파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외교부 2011년 재외동포현황 자료의 베이징 한국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한국인 거주자의 53%가 상사주재원이나 기업체 장기출장자이며 이들의 가족으로 동거 거주하는 인원이 12.9%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주재원 가구가 전체의 65.9%를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거주자의 10%에 그쳐 한국인의 80%가 자영업자인 칭다오시의 경우를 감안하면, 베이징의 직업 분포는 타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인진,

2004). 베이징에 주재원 비중이 높은 직업분포는 베이징 한인 사회를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한국인 이주가 발생한 시점의 국가 간 경제적 위계는 모국이 정착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세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의 한국인의 유입은 전통적으로 설명되던 이주 흐름과는 상반되는 역이주의 특징을 지닌다. 베이징 주재원의 유입은 한국 대기업이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양성한 중국 지역 전문핵심인력이거나 본사의 관리자급의 지위를 갖는 고속련-고임금 직종의 이주였다. 정착국의 저임금-저숙련 직종으로 이주자들이 유입되는 노동이주와는 전혀 달랐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주유입이 정착국의 자국 노동시장으로 흡수되는 양상이라면 한국인의 이주는 모국 기업이 새롭게 산출한 경제활동과 기회구조로의 유입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베이징으로 이주하는 주재원들에게 이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와 체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는 이전비용(relocation package)을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주재원들의 이주방향이 비록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 주재원의 삶은 거주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모국 기업이 선사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여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 주재원들은 베이징의 한인 계층화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한국인 조사참여자들의 상당수가 주재원이 한국인 집단의 상층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기업 주재원이나 공기업의 파견 직원들은 기업에서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와 고급 아파트 월 주거비 등의 체제 지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베이징 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이라도 값비싼 국제학교와 고급 아파트의 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주재원들은 주재원들만큼의 복리를 누릴 수 없었다. 현지 부동산 업자具씨는 한국인 주재원들은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 앞 다투어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³⁾

따라서 베이징에서는 왕징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던 초기에서부터 한국인 집

3) 2012년 8월 14일 현지 부동산 업자具씨 인터뷰.

단은 내적으로 위계적 서열이 주재원과 비주재원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구분은 이주 역사가 길고, 올드커머가 정착국의 주류사회로 동화되면서 중산층으로 편입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한인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베이징에서는 한국인의 이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재원/비주재원의 구분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주재원들은 자녀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국제학교로 입학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는 특혜를 포함해서 비주재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복리를 누리기 때문에 불안정한 타지 생활을 하는 비주재원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인 자영업자 文씨는 주재원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사교 모임 또한 끼리끼리의 문화 양상으로 위계 서열화되어 있어 배타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의 예민한 계층의식은 지난 10년간 베이징에서 자영업자로 생활하면서 자신보다 상층에 위치한 주재원들에 대한 위화감 또는 사회적 거리감을 반영한다. 이렇듯 베이징의 한인사회의 준거집단은 그 폭이 좁았다. 한국 사회처럼 다양한 요소들로 나뉠 수 있는 계층 구분과는 다르게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주재원집단과 비주재원집단 간의 구분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위계 서열은 왕징 내부의 공간적 위계화와 연관되어 나타났다.

“솔직히 여기서 어느 아파트 산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음, 알아요. 왕징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통하죠. 별표 5개짜리가 동호만이고, 별표 4개로는 대서양신청 중에서도 여기 넓은 평수... CLASS, 별 3개 화정세가... 이런 식으로 주재원 아줌마들 목에 힘주고 다니고 자기네들 끼리만의 그런 게 있어요. 왕징을 보면 여기 3구나 4구는 가장 가난한 한국인들이 산다고 보면 되고 돈 많은 주재원들은 이런데 안 살죠.”(文씨, 한국인 30대 자영업자)

이러한 주재원과 비주재원의 분리는 조직의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한국인 단체는 한국 상회와 한국인회가 있는데, 전자는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후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국에서

는 외국인 민간단체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중국 한국상회가 유일하며 가장 오래된 한국인 단체이다. 1999년에는 한국 거주 교민들을 위한 중국 한국인회와 재북경 한국인회가 정식 발족하였지만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여러 차례 행사가 무산되기도 하는 등 거주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 내에서도 한국 상회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 베이징 한국인 단체에서 초청을 많이 받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자주 한다는 한 조선족 朱씨는 한국인 단체가 서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인회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대기업하는 사람들은 회사 위주로 모임을 많이 하지. 4월 말에 현대에서 초청이 와서 강연해달라고...거기 현대 자동차하고 회사하고 계열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모이지 한인회 나가지 않는다고.”(朱씨, 조선족 60대 강연자)

앞서 지적한 한인사회 내부의 계층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비주재원집단에게도 정착국 내에서 이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비록 주재원처럼 기업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한국인 집단이 지각하는 이주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기업이 중국 진출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투자환경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차익을 높이고자 한 것처럼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로 이주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생활환경을 풍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을 맛보았다. 뿐만 아니라 비주재원들은 주재원들과 달리 파견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 이주의 주요 동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잠재적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주 흐름은 전통적인 이주이론이 설명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경제적 효용을 추구하는 동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인의 이주는 모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지역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일반적인 이주 양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고, 모국에서 누리기 어려운 윤택한 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미래 자원을 탐색

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조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은 한국인의 이주 동기에는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자원 확보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명문대학교에서 중국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에 바로 베이징으로 건너 왔다는 安씨의 경우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보다 이전에 베이징에 진출한 사람들의 실패담과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현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1990년대 진출한 한국인들이 형성한 동문이나 지역 모임, 교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베이징 생활에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가 중국학과를 졸업하고 왔을 때만 해도 아 뭔가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이 컸어요. 전공을 살려서 큰 꿈을 안고 왔죠... 중국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한국에서는 아예 취업할 생각도 안했었으니까요... 포부가 컸어요...”(安씨, 한국인 30대 자영업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상해가자 중국에 대한 잠재력과 미래가치에 대한 인식은 비단 경제활동 영역 뿐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도 중요한 건인역할을 하였다. 베이징에서 일을 하는 부모를 따라 자녀들의 조기 유학도 생겼고, 중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한국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중국 조기 유학을 위해서 베이징을 선택하여 이주하였다. 기존의 유학대상국은 영어권 국가에 집중되었으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이 선사하는 미래 청사진은 이런 유학 풍조를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해 중국어권을 교육의 메카로 부상시켰다. 중국 교육열풍은 초국가적 가구 배열을 초래하였지만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기대감은 불편함과 역경을 감수하도록 하였다. 이런 이유로 베이징에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의 일부만 거주하는 분산 가족이 상당수 발생했다.

자녀와 단 둘이 4구에 거주하는 한국인 申씨는 중국이 향후 미국보다 중요한 유학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주위에서 중국 생활이 타 지역

보다 수월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베이징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징에 가면 한국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돈으로 가정교사를 고용해 중국어를 교습 받을 수 있으며, 중국어를 할 수 없어도 가사 도우미나, 보모 등을 고용해 한국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육아와 가사에 지친 한국 '아줌마'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송금 받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2007년까지는 환율이 1위안에 120원대인데다가 값싼 물건이 많기 때문에 풍족하게 지낼 수 있어 베이징 생활에 상당히 만족해했다고 하였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너무나 무서웠어요... 처음에 베이징에 탐색하러 왔을 때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엄청 좋은 호텔인데도 몇 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니까 발 마사지 받는 것도 거의 몇 천원 수준이고,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지만... 조선족 아줌마가 있으니까 같이 장보고... 조선족 아줌마 써도 얼마 안 들고...”
(申씨, 한국인 30대 학부모)

그러나 2008년 후반기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인의 중국이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한 풀 꺾이게 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은 대량의 한국인 귀국행렬을 이끄는 배출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원화가치가 두 배 가량 떨어지면서 1위안에 120원하던 환율이 1위안에 245원까지 치달아 많은 수의 한국인들은 환율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까지 사정이 악화되었다.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유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급증하였다. 한국인을 주 소비자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손님이 없어 폐점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일어났으며 무단철수 및 야반도주를 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 당시의 베이징과 관련된 뉴스들은 이와 같은 베이징 한국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사로 가득 채워졌고, 결국 중국 내의 많은 한국인들은 갖고 있던 부동산, 사업체 등을 헐값에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귀국을 감행해야했다.⁴⁾

4) 연합뉴스, 1998년 2월 9일자.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중국몽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지만 중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모국으로 귀국하기보다는 중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경로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인 于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국 생활을 버텨온 시간만큼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경로가 손해를 가장 줄여주기 때문에 중국 생활 이외의 다른 대안적인 경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중국에서 성취한 건 없지만 한국보다는 중국 내에서 생활기반을 다져놓았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퇴직하면 중국 내에서 창업을 통해 자리를 잡을 예정이이예요. 우리 딸 교육 문제도 얽혀 있고... 중국 내에서 일을 하다가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되고해서...”(于씨, 한국인 50대 주재원)

중국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처음부터 불확실성이 배태되어 있었다. 잠재력을 실질적인 자원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 특히 중국은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민생활을 견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약하거나 중국어 능력, 중국사회에 대한 지식과 연계가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국으로 떠나려 하지만 중국생활이 익숙해지고 창업 또는 자녀 교육과 같은 장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중국에 정착하려고 한다. 예성호·김윤태(2014)는 전자를 ‘떠중과’(머지않아 중국을 떠난다), 후자를 ‘빠중과’(나의 뼈를 중국에 묻겠다)로 구분하면서 이 두 집단의 지향성이 자녀교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집단은 자녀를 ‘외국아이’가 아닌 ‘한국아이’로 기르려고 한국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두 번째 집단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자녀를 ‘중국통’으로 기르려고 중국학교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렇듯 베이징 한국인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초기의 체류자 사회(sojourner society)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민 사회(settler society)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조선족의 베이징 이주

조선족 인구이동과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호구제도가 느슨해지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조선족은 다른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고 조선족 인구의 97%가 동베이 3성에 거주하였다. 박광성(2006)은 조선족사회는 중국 특유의 도농이원화 구조에서 비롯된 지역적 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베이징 시의 경우 조선족의 수는 1990년 당시 7,375명이었고(중국통계청, 1990), 1990년대에 베이징에 거주하던 소수의 조선족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로 인식되었다.

1990년대 초반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의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명문 대학을 졸업한 조선족들을 기용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족들 또한 한국 기업의 통역, 관광 가이드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월드옥타 베이징 지회 김영국 회장은 당시 베이징 현지에는 조선족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정부기관이라고 해봤자 인민방송국과 국제방송국, 민족대학 등 소수기관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족 인력수급이 필요하였다고 회고하였다.⁵⁾ 그는 베이징에 조선족 대졸 고급 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1990년의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한국인 출장자와 방문객들로 인해 이들을 안내해주는 통역과 가이드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가이드로 일해 온 조선족 林씨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조선족들이 가장 선호했던 직업은 한국인 가이드였다고 한다. 한국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조선족들을 고용할 경우 그들의 봉급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기꺼이 베이징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⁶⁾ 당시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인지라 '외국인을 접촉하는 것만

5) 2012년 7월 30일 월드옥타 베이징지회 김영국 회장 인터뷰.

6) 연합뉴스, 1990년 9월 26일자, "조선족 동포 본격적인 베이징사회진출 한창" 동베이 3성의 엘리트 중심 조선족들이 중원(베이징)으로 대거 진출하여 이미 1만 명 정도가 중국 사회의 핵에 입성하는 움직임이 한참이라고 보도하였다.

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으며 한국인들의 소비력이 가장 커서 한국인 가이드가 되면 큰 액수의 커미션을 챙길 수 있었으며, 당시에는 커미션이 여행사의 몫이 아닌 가이드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1990년 초기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으로 이주한 조선족이나 베이징에서 대학을 졸업한 조선족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이들 조선족들은 음식점이나 숙박업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지 않으려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숙박업은 처음에는 안하다가 부동산도 아니고...조선족들은 당시에 얼굴이 있어 가지고 좀 자기네 생각에 좀 그런 건 안했거든... 음식점도 초반에는...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점을 안했다고... 자기네 생각엔 레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가이드로 많이 남아있지.”(林씨, 조선족 50대 가이드)

조선족 무역업자 權씨도 베이징에서 대학을 나와 국가에서 지정해준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무역업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베이징의 조선족 경제의 또 다른 특성을 무역업이라고 설명하였다. 텐진만 해도 조선족들이 제조업 종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일본이나 한국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족 학교와는 다르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 2외국어로 영어가 아닌 일본어를 집중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통한 조선족들은 자신의 언어자본을 활용하여 일본과 무역을 발달시켰다.

“베이징 쪽에는 무역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 외국어 제일 많이 배운 게, 조선족들은 일본어가 제일이었지. 고등학교, 초등, 중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게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였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영어교사가 없고... 현재까지만 해도 70대 30으로 보면 교사가 7명이 일본어 가르치면, 3명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우리는 영어를 못 배우고 일어를 배웠다고. 한족학교는 영어를 가르쳤지. 그래서 지금 일본 쪽 비즈니스하는 사람... 베이징만의 특징은 무역업이 많고...”(權씨, 조선족 50대 무역업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숙소, 교육비, 교재, 생활

보조금과 같은 비용을 일체 부담해주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대졸자의 직업 결정권은 국가가 결정하였다. 국가에서 정한 대로 대졸자의 직업이 배분되고 이들의 거주지역도 국가가 정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부터 중국은 국영기업을 분류, 심사하여 1/3에 해당되는 국영기업을 폐쇄하거나 합병하였고, 1992년 공산당 제 14차 전국인민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전략을 수립한 이후 1993년 기업법을 제정하여 국영기업이 스스로 구조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 이런 국영기업 개편과 함께 국영기업은 적자를 내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체불 및 인력방출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한 대규모의 시위나 노동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 운영방식이 줄어들면서 파산한 국영기업도 속속 나오게 되었다.⁸⁾

이와 같은 당시의 중국의 상황은 인터뷰 대상자인 조선족 林씨와 權씨의 사례에서처럼 대졸의 엘리트 조선족들이 국영 기업을 그만 두거나 국영 기업에 적만 둔 채 한국 기업의 중개자나, 통역 및 가이드 업종에 뛰어들게 하는데 커다란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설명해준다.⁹⁾ 1994년 대우 베이징 지사가 조선족을 대상으로 직원 공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총 32명 선발에 1,200여명의 조선족이 지원해 40: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조선족들 대부분이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비롯한 중국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한다.¹⁰⁾

동베이 3성 조선족들의 베이징으로의 이주는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이주 초기부터 '모국'의 경제적 요소가 이주유입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의 이주는 모국 기업, 모국 자본, 모국 사람들을 통해 여러 다양한 수준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베이징으로의 조선족의

7) 연합뉴스, 1990년 7월 9일자, "중국 국영기업 1/3 폐쇄, 또는 합병", 연합뉴스, 1992년 10월 13일자, "중국 공산당 14 전대회 정치보고요지"

8) 연합뉴스, 1994년 3월 2일자, "중국, 노동자 소요 확산 우려 긴급자금 배정"

9) 2012년 8월 10일 황유복 교수 인터뷰.

중앙민족대학의 조선족 학자, 황유복 교수는 이러한 조선족의 탈 국영기업화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본다. 조선족들이 베이징 내에서 중국 사회의 주류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의 경제적인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10) 한겨레, 1994년 8월 18일자,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한국기업 5"

유입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족의 이주는 중국 내 농촌-도시로의 국내 인구이동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가적 이주의 특성을 지닌다. 조선족의 도시 이주는 물리적 의미의 정착국- 모국간 지리적 영토의 경계 가로지르기(border crossing)의 초국가성이 아닌 정착국의 도시 공간 내에서 모국이 제공하는 종족경제로의 유입, 탈영토화된 모국의 사회경제적 공간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초국가적 특성을 갖는다(Faist, 1998).

조선족사회의 이농 이주현상은 1990년대 초부터 각종 미디어 매체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4년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졸 조선족들은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통역을 겸한 직원으로, 학력이 낮은 조선족들은 한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에 몰려들고 있어 조선족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¹¹⁾ 1999년의 연변 방송도 베이징에 이주한 조선족들은 한국인 대상의 음식점, 유흥업, 여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단일적 형태의 조선족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되었던 초기 양상에서 점차 조선족 기업이 다원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¹²⁾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이 왕징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의 사적 경제영역에서 일거리를 찾는 저임금-저숙련의 조선족들도 왕징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왕징 코리아타운은 한인 종족 경제의 중심지로 형성되었다. 베이징으로 파견되는 대부분의 주재원들은 중국생활이 처음이고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조선족을 사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조선족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였다. 주재원가구 뿐 아니라 왕징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언어장벽에서 오는 적응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소, 운전, 육아, 가사 등의 생활편의를 누리는 생활방식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베이 3성에서 이주한 조선족들은 음식점, 민박집, 부동산 중개소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사도우미, 보모, 통역 등 한국인의 경제에 의존하거나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동근(2009)은 2000년 초에 이루

11) 경향신문 1994년 8월 16일자, “급변하는 조선족 사회”

12) 연합뉴스, 1999년 2월 5일자 “베이징 진출 급증”

어진 조선족의 이동이 개혁개방 이래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족의 이주와는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족의 이동이 인근 도시로의 이주가 아니라 한국 자본이 들어서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조선족의 중국 도시로의 이주흐름은 모국기업의 초국가적 자본이 이전하는 방향에 상응하였다. 따라서 이들 이주의 특성은 베이징 뿐 아니라 타 도시에서도 한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무척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도시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호구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불법적인 신분으로 지내야 했지만 한국 대기업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일거리와 한국인에 의한 사적 고용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Jeong(2013)은 베이징 이주자 대부분이 베이징 도심 내에 정착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더 가난한 지역으로 축출된 것과는 달리 동베이 3성에서 이주한 조선족들이 왕징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기업과 자본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타 이주자들과는 다르게 조선족들은 종족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경제적인 힘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징에서의 정착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베이징의 경우에는 대기업 본부가 대거 진출하면서 한국인의 경제적인 보조역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족들이 선호할 만한 사회적으로 위신 있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이주한 조선족과 비교하였을 때, 베이징 조선족은 모국 기업을 통한 경제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베이징의 도시적 위상은 유출지역과 유입지역 간 경제적 위계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하여 조선족들의 베이징 이주의 물질적/비물질적 효과는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만약 모국의 초국가적 자본이전이 동베이 3성으로 집중되었다면 조선족의 이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중국의 타 대도시 지역에 비교했을 때 모국 자본의 투자가 저조했던 동베이 3성 지역은 조선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모국 자본이 대규모로 이전되는 베이징으로의 조선족 이

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11).¹³⁾

4. 한인 종족공동체의 형성 및 변화

한중 수교 이후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한국인들은 초기에는 주중 대사관과 한국 기업들이 있는 차오양취(朝陽區)를 중심으로 체류하기 시작했다. 왕징(望京)은 1990년대 초부터 신흥 중산층의 거주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베이징 동북부 외곽지역인 왕징 지역은 1980년대에는 농민들의 거주지인 농지였으나 베이징시의 종합적인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에 베이징시권 설개발공사(北京城市建設開發集團總公司)에 의해 개발을 시작하였고(백권호 외, 2010) 1994년에는 베이징시 정부가 왕징을 상품주택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995년에는 왕징의 첫 상품주택개발단지인 왕징신청 4구의 건설이 추진되었고 1997년에 완공되었다. 그 후 3구와 대서양신청도 각각 건설되어 2000년과 2001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 들어 왕징 4구와 3구 주변으로 보성원, 후이구영광, 올리브 등 많은 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었고 화정세가, 동호만, CLASS 등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건설되면서 왕징 거주지역의 고급화에 기여하였다.

왕징 지역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기 이전에 외국인 거주지로 허용된 곳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건설된 아시아선수촌인 야원촌(亞運

13)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는 12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3년의 2만 400명에서 5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국 내 조선족 인구수는 한국인의 인구수가 2009년부터 감소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성, 시에서 2007년 이후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시의 경우에도 조선족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둥반도 칭다오시의 경우에도 칭다오는 모국의 기업투자나 한국인 자영업자의 진출이 가장 컸던 지역으로 2007년 이후로 제조업 사업여건의 악화로 인해 한국인의 사업 철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수는 줄고 있는 반면 한국인이 경영했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조선족이 증가하면서 조선족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村)과 대사관 주변 지역, 화자디(花家地)지역 등지였다. 한국인들은 이 지역들에 분산되어 거주하였다. 당시에는 중국 법률상 외국인 거주지역이 제한적이었고, 외국인들의 주거제한조치가 일찍 풀린 상하이(上海)와는 다르게 베이징 한국인은 조양구 내의 특정 고급 아파트에만 거주할 수 있었다. 외국인 거주지로 지정된 아파트의 임대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특정 대기업의 주재원이 아닌 이상 감당하기 힘들만큼 가격이 매우 비쌌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은 주거제한 지역 밖에 거주하는 일이 많았고 중국 공안은 수시로 외국인 불법거주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¹⁴⁾ 베이징의 외국인 거주제한 해체는 2003년 10월이 돼서야 완전히 철폐되어 한국인들은 거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단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농지와 밭이었던 왕징지역은 4구(四區)가 1997년에 입주를 시작하고 난 후에도 2000년 초반까지도 가게나 상점도 띄엄띄엄 있을 정도로 미개발상태였다고 한다. 1980년도부터 베이징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한 조선족 김씨는 자신을 베이징대학교 80학번으로 소개하며 왕징 코리아타운이 생기기 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한중 수교 전후로 베이징으로 모이기 시작한 한인들은 서로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고 초기에는 한인의 접촉 공간이 조선족 지식인들이 있는 민족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오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왕징이 그때 정말 여기가 4구, 3구가 허허벌판이었거든...그때는 코리아타운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민족대학있는 해정구가 코리아타운이었다고... 타운이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하는 동포들이 거기 몰려있었다고.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맨이 다 그쪽 동네에 있는 호텔이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웨이공춘... 조선족들도 여기에 모여 있고... 통역들도 하고...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나하면 쿤문 호텔로 그쪽에서 한 모든 영업소도 호텔주변으로 모였다고... 90년대 이리다가 2000년도 되가지고 왕징에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김씨, 조선족 50대 기업가)

14) 동아일보, 2000년 9월 8일자, 중 공안, “불법거주 외국인 수색...과잉단속 물의”

왕징에 건설된 4구의 새 아파트는 당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야원촌보다 훨씬 집세가 저렴하면서 야원촌 못지않은 신식의 고급스러운 시설을 갖춰 한국인들이 옮겨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인들이 4구와 3구에 대거 입주하면서 왕징은 초국가적 중족공동체로서 코리아타운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중호(2013)는 1997년 당시 왕징신청 아파트의 월세가 동일 평수의 야원촌의 아파트에 비해 15~25%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⁵⁾ 정중호는 왕징신청의 아파트 임대료는 베이징 일반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인에게는 외국인 거주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한 베이징의 중국인은 한국인에게 임차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징 코리아타운은 중국인 소유주와 한국인 임차인의 결합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은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한국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조선족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부각한다. 자신들은 크고 작은 일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 중국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의 중국 진출과 남북통일과 같은 사안에 있어 조선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담론을 생산해오고 조선족 대중과 한국 사회로의 담론확산에 힘을 기울여왔다(김강일, 1998, 2006; 박광성, 2006, 2007).

2001년부터 왕징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였다는 조선족 부동산 중개업자朴씨의 경우에도 왕징이 한국인 밀집 지역이 된 데에는 조선족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왕징신청이 건설된 당시 새로 이주해온 한국 주재원들이 넘쳐났으며, 이들이 왕징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족들이 왕징 근교에서 숙박업과 여행업, 그리고 부동산업을 먼저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조선족 부동산 업자들은 새로 유입된

15) 1997년 당시 외국인 거주지역의 아파트 월세는 130평방미터 기준 25,000~30,000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인 이주자들에게 왕징 아파트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왕징에 한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었지 단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왕징 내에는 고층 아파트는커녕 변변한 건물도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새 고층건물인 왕징신청은 돈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단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조선족들이 주재원에게 4구와 3구에 소개하면서 왕징에 한국인들이 집중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집을 살려면 누구한테 사겠어요. 여기 있는 교포들이 이쪽에 집을 소개하는 거죠. 그때는 왕징에 3구, 4구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나머지는 이주민들이 와서 사는 거였어요. 3구 4구는 고층건물... 그때 당시 외국인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태였고 한국인 포함해서... 조선족들이 음식점, 식품점. 특히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현대나 엘지나 삼성이나 이런 주재원이 몇 백 가구가 일년에 들어오니까... 다 그 주변에 있는 고가가 형성이 된 거죠. 왕징이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중국 사람들 통해서 왔으면 흩어졌겠죠. 근데 조선족들이 부동산을 하니까 일루 집중된거죠.”(朴씨, 조선족 50대 부동산 중개업자)

왕징 코리아타운이 형성되면서 한국인과 조선족 간의 공생은 경제적인 고용-피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엮여져갔다. 그러나 초기에는 동베이 3성에서 이주해온 조선족들이 왕징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조선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에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은 저렴한 월 임대료를 내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인 성중촌(城中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정종호, 2013). 조선족들은 왕징 인근이나 조양구 내의 고려촌이라 불리는 곳에 살면서 왕징 아파트 단지로 출퇴근을 하며 한국인의 경제적 보조 역할을 하였다. 왕징 코리아타운의 아파트 단지는 한국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며 한국인 편의시설이 들어선 곳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의 왕징 코리아타운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공동의 주거지를 의미하기보다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종족 중심의 공통 공간을 지칭하는 측면이 컸다.

그러나 차츰 한국기업과 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점차 자본을 축적하거나 한

국에서 노무를 하여 자산을 확보하여 온 조선족들이 베이징에 등장하면서 상황은 변해갔다. 모국 자본에 기대어 온 조선족들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기반을 잡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국기업과 한국인을 상대로 사업발전을 이룬 조선족은 한족과의 경제 네트워크의 구축뿐 아니라 중국의 제도적 틀 속에서 한국인보다 유리하게 위치할 수 있었다. 조선족들이 성장하면서 조선족 경제의 다원화와 조선족 집단의 내부 계층화는 이전과는 다르게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들이 왕징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는가하면 중국의 호구제도가 풀리면서 조선족들이 왕징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 왕징 아파트의 조선족 거주자들도 늘어났다. 조선족 鄭씨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집을 작게 차려놓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왕징 지역 중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예상치 못할 만큼 장사가 번창했다고 하였다. 그때 번돈으로 왕징 아파트를 구입하고 위치 좋은 곳으로 식당을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때 집을 살려고 예상을 했는데,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새로 짓는 집 기다리다가 3년을 더 기다렸다고... 침엔 임대해서 살자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집을 맘대로 사지 못하니까 호적제도 때문에 그게 풀리면서 산거라고... 98년에 여기 와서 돈이 없었다고 한식집을 했는데 엄청 장사가 잘됐어. 외딴 데 있었는데 주변에 다 밭이었는데.. 완전 장사가 잘됐다고...”(鄭씨, 조선족 40대 음식점 주인)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조선족 중에는 한국에 가서 노무를 하여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자산축적을 하는 조선족들도 있었다. 조선족 경제발전에는 왕징의 종족 경제에서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모국인 한국에서의 경제활동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화정세가의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선족 成씨는 현재 왕징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족 음식점 중의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다. 成씨는 한국에서 8년 간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베이징에 돌아온 후 조선족 남편을

만나 결혼한 30대 여성이다. 그녀의 가족은 음식점을 해서 번 돈으로 화정세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유통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여 병행하고 있었다. 成씨를 면접할 때 같이 있던 조선족 친구들은 그녀 가족의 성공을 무척이나 부러워하면서 식당 상호를 알려주며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를 귀뜸해 주었다. 그러나 成씨는 성공한 조선족들이 워낙 많아져서 왕징 내에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조선족들도 있고 사업규모가 큰 사람들도 많아 자신들은 그리 잘사는 축에 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조선족들의 한국인의 경제적 보조 역할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전처럼 한국인과 조선족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인 상점이나 한국인 가정에서 일용직(打工)형식의 일로 한국인 보조 역할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베이징으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족 신이주자들이거나 나이가 많은 조선족들이다. 이들은 왕징의 아파트 한 채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종족공동체 내에서 한국인이나 조선족 경제에서 일감을 찾아 살아가는 조선족집단의 최하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다.

조선족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왕징 코리아타운의 종족집단 간의 관계양상도 변해갔다. 초기에 조선족과 한국인이 빈번하게 맺었던 생활편의-경제적보조관계도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조선족의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집단 간의 관계가 주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점차 부각되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언어장벽이 없어 편리했던 부분은 오히려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줘야하고 가족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의 속성을 함께 갖고 있었다. 한국인 주부 裴씨는 한국인들은 굳이 조선족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조선족보다 임금이 더 낮은 한족을 고용하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인들은 이주기간이 길수록 중국 생활의 적응 상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중국 생활에 있어 더 이상 조선족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구에 위치한 한국가정센터의 직원 許씨도 예전에는 조선족을 많이 찾았지만 지금은 한국인들이 모두 임금이 낮은 한족을 선호하는 편이

라고 하였다.

“조선족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니깐 불편해... 비밀이란 게 없고 또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래서 안 좋더라구... 한족 가정부의 경우에는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을 설명해주고 나면 알아서 하나니까.”(裴씨, 한국인 40대 주부)

“요즘 환율이 올라서 힘들어... 한족이 훨씬 싸... 돈 조금 쥐도 하겠다는 사람 많고... 조선족은 한국말 할 줄 안다는 거 그거 때문에 얼마나 비싸다고...”(許씨, 한국인 50대 한국가정센터직원)

조선족의 경우에도 한국인과의 경제적 공생관계에는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족과 한국인간의 경제적 관계는 단순노무에 대한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 한정되기보다는 한국 사업가의 보조 관계를 띠는 경우도 많았으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부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과 무역업을 했던 조선족 30대 무역업자 白씨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기업가들로 구성된 협회인 월드 옥타(World OKTA)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물건을 납품받아 영업할 당시를 떠올리며 한국인들의 무책임함을 비판하였다. 한국인보다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조선족들을 현지책 역할로 영업을 맡게 해놓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아무 것도 안 해 주면서 우리 보고 알아서 팔래요. 자기네들은 손 놓고 편하게 돈 벌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지금은 한족들이랑 수입차 판매를 하고 있어요.”(白씨, 조선족 30대 무역업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같이 일하다가 망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럼 그 뒤처리는 누가 다하는지 알아요? 우리 조선족이 다해야 되요. 2008년을 기점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이 잘못 되서 돌아간 게 태반인데... 그래서 다시는 한국 사람하고는 일 같이 안 해요.”(尹씨, 조선족 40대 사업가)

개인적 차원의 동족 집단 간 관계뿐만 아니라 단체의 차원에서도 조선족은 조선족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한국인은 한국인 단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 형성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동족 집단 내 단체의 분리현상은 중국의 경우의 특수하게 나타나는데, 중국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한국인과 단체 활동을 함께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인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적인 모임을 보면, 법적인 허가가 나지 않은 가정 교회가 왕징 내 상당 수 존재하며 많은 수의 종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한국인들은 한국인 교회에, 조선족들은 조선족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경 내 대표적인 한국인 단체인 재베이징 한인회와 재중 한국상회의 경우에도 조선족 회원을 두지 않으며 반면 한국의 지식경제부 산하의 월드옥타의 베이징지회의 경우에는 조선족 사업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초반에는 월드 옥타에 한국인 사업가들이 회원으로 있었으나 회장선거와 관련되어 다툼이 있던 이후에 차츰 한국인 회원들이 빠져나가고 월드 옥타 한국인회를 만들었으나 곧 해산되어 현재는 한국인 회원은 한명도 구성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은 한국인 단체와 조선족 단체 간 분리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중국 내 도시 간 위계에 따라 도시 간 조선족 집단의 특성이 구성되고 있어 경제적인 수준 뿐 아니라 상징적인 수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 조선족 집단의 성장과 내부의 이질성이 크게 가시화되고 있었다. 조선족 權씨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노동자들도 있지만, 베이징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조선족 중에서도 높은 레벨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보모를 고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한국식품점에서 장을 보고 질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수준에서 한국인들의 패턴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16) 2012년 7월 30일 월드옥타 베이징지회 회장 인터뷰.

베이징의 조선족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조선족 집단이 기반을 잡고 생활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식을 하고 있었으며 성공한 조선족 사업가들을 자신의 사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왕징에서 고급 커피 시장을 겨냥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바리스타 金씨의 경우에도 조선족들의 변화된 소비능력을 인식하고 조선족들을 주요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었다.

“조선족들의 의식이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지금 제 단골고객들 중에 조선족들이 상당수 차지해요. 더치커피가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커피를 내리는 건데 가격이 한잔에 80위안이에요. 제 커피원두도 유기농이고 해서 제 커피에 대해서 자부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고급소비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커피사업을 시작하지 1년 조금 넘어요.”(金씨, 한국인 40대 바리스타)

한국인 사업가 李씨는 조선족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학습하고 실천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획득의 통로임을 배웠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에 촉각을 세웠고 현재 부동산으로 자산을 높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라 부동산을 사기도 힘들었고 베이징에서 얼마나 거주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때문에 주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비록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을 팔고 귀국하여 한국인들은 조선족과는 달리 중국 부동산투자로 인한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족들은 왕징에 아파트를 많이 샀죠. 한국이 경제발전 시기 부동산으로 돈 번 걸 배운 거죠. 우리들은 예전에는 부동산을 살 수도 없었고... 산사람들이 있어도 2008년 많이들 팔고 갔어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엄청 돈 벌었을 텐데...”(李씨, 한국인 50대 사업가)

중국의 경제는 동일한 기간을 같은 지역 공간에서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왔던 한국인들의 그간의 노고와 수고를 무화시켜버리듯 초고속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인들은 고답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위기의식마저 휩싸인다. 중국인과 조선족들은 이 상승세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면서 동반성장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듯 저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인 사업가 閔씨는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족기업이 한국기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단위의 규모에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지점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성공한 조선족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조선족이 성장한 폭만큼 성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사업가 洪씨는 이러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처럼 그렇게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지요. 솔직히 한국사람 성공한 거랑 조선족들이 성공한 거랑은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처음에 얼마나 상황이 달랐는데...”(閔씨, 한국인 40대 사업가)

“잘 생각해봐라...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조선족한테 발 마사지를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 거야. 한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끼리 이런 말 농담처럼 던지지만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앞으로 얼마나 심해지겠냐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얼마나 빼졌어 근데 이젠 여기서 ‘작은(小) 한국인’이라고 불린다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洪씨, 한국인 50대 사업가)

조선족의 성장은 한국인들에게 더욱 상대적인 정체감(停滯感)을 느끼게 하였다.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조선족들의 성장과 같은 외적 요인이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물가 상승, 위안화의 가치 상승까지 겹쳤다. 주재원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위축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북경 생활을 한지 5년 차의 玉씨는 체제 보조금이 정액제로 바뀌어 한국 주재원들의 생활도 이전과 같이 풍요로운 생활은 어렵다고 말하였다.

“예전엔 회사에서 집을 구하면 구한 집세 그대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왕징에서 맘에 드는 아파트를 골라서 임대할 수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주택보조금이 정액제로 바뀌었어요. 아파트 월세도 많이 올랐는데,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집세를 내야 하나까 예전처럼 여유가 없네요...”(玉씨, 한국인 30대 주재원)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로 위안화 가치가 무려 2배 이상 상승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손에 쥐고 있는 중국 돈이라도 본전 뽑는다는 생각에 많은 한국인들은 귀국을 선택했다. 한국인 계층의 말단에는 베이징에 와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자본을 모두 잃어버리고 방 한 칸을 임대하여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있다. 2012년 상반기에는 베이징 당국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재베이징 한인회는 불법체류 한국인 귀국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할 정도로 베이징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문제도 생겨났다(재베이징한국인회, 2012).

한국인의 중국 이주는 초기부터 불확실성위에 놓여 있었고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긍정적인 이주 효과로 이끄는 관건이었으나, 거시적 환경 변화는 한국인 이주자의 불확실한 상황을 배가시켰다. 한국인 徐씨는 여전히 중국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베이징에서 사업에 투자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었다.

“중국에서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국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중국에서 현대자동차를 빼면 대기업들도 다 죽을 쓰고 있죠.”(徐씨, 한국인 40대 사업가)

남아있는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왕징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이른바 ‘탈 왕징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징의 코리아타운으로 집결되었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는 여전히 구심적 힘

을 갖고는 있지만 베이징의 외곽지역으로 분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게 중국의 위안화가 170에서 180대에 이르면서 물가 수준도 서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데다 왕징 아파트 임대료도 점점 상승하다보니, 한국인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¹⁷⁾

“점점 왕징에 한국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왕징이 서울 강남 정도예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앞으로 한국인들이 왕징을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예요.”(李씨, 한국인 50대 사업가)

이런 상황은 베이징 시정부가 2010년에 왕징을 제 2의 상업금융중심지(Central Business District)로 지정한 후 왕징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심화되었다. 베이징 시는 왕징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지멘스 등 많은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왕징에 입주하게 되었다. 왕징에 외국계 기업까지 가세하자 부동산 붐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왕징은 글로벌화된 고급 주택단지로 변모하고 있다(강진석, 2007). 왕징 지역은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족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탈왕징화는 점차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인들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순이취¹⁸⁾를 비롯하여 베이징 동부의 허베이성(河北省) 싰허(三河)시 옌자오(燕郊) 경제기술개

17) 2012년 8월 14일 현지 부동산 업자 쉰씨 인터뷰.

2012년 8월 왕징 부동산의 거래를 보면 오래된 4구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 m^2 당 25,000 위안정도이지만, 가장 최근에 지어진 대서양신청 신구역은 m^2 당 45,000위안을 넘는다. 임대인 경우는 동호만의 방 3칸 자리는 15,000위안 정도로 한국 돈으로 월세 2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대서양신청의 F구역, 보성, 구풍상관 등 방 4칸의 경우에는 25,000위안(한국돈 430만원)을 넘어선다.

18)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베이징시 인근의 순이취(順義區)는 베이징 시 도시총체계획(2004-2020)에 의해 동부발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신도시로 베이징 시내에서 35Km 떨어져있으며, 베이징 수도 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순이취 정부는 인재도입관련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전문인력에게 베이징시 직업거주권을 제공하고 경영자 및 임원직 가족들에게는 사회보험, 자녀 교육 등 중국 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며 한국 기업 유치와 한인 타운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순이취에는 왕징 한국 국제학교보다 명문으로 통하는 ISB 미국계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이 있으며 왕징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한국인 각종 한인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발지구¹⁹⁾ 등 베이징의 외곽지역으로 점차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순이취나 옌자오로 이전하여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고 중국의 건설회사도 이를 겨냥하여 이 지역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는 왕징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원룸, 방 2칸짜리의 경우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정도로 왕징의 임대료와 큰 차이가 난다. '베이징 코리아'이나 '기업정보'와 같은 한국인을 위한 잡지에는 생활 편의 시설 목록을 왕징지역과 우다우코우 지역만을 수록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발행되는 한국인 정보지에는 순이취, 옌자오(燕郊) 등을 포함하여 전화번호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베이징 교외로 분산되는 현상은 이민 연구의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민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도심의 종족 경제를 벗어나 교외에 정착하는 교외화과정은 이민자의 안정된 경제력을 입증하고 상향 사회이동을 드러낸다. 뉴욕의 한인 이민자들에 관한 민병갑(Min, 20008)의 연구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주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이민자들이 영어구사력과 자본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이 거주하는 교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에서 나타나는 한인 이주자들의 베이징 교외화 현상은 한인 이주자들이 정착국에서의 적응이 성공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 오히려 이주로 인한 상당한 하향이동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베이징 한국인회 이창호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베이징 한인사회의 가장 큰 변화로 언급했던 측면이 한국인들의 '탈왕징화'였다.²⁰⁾ 왕징에 거주하였던 한

19) 옌자오(燕郊)는 행정구역으로는 베이징시에 속하지는 않지만 천안문에서 30km, 순이취와도 20km 떨어져있어 베이징시의 다른 외곽지역보다 가까이 위치해있다. 베이징의 CBD지역의 동부 확장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고 2010년에는 국가급 첨단기술개발지구로 승격된 옌자오에는 2011년부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원이 건설 중에 있고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등 43개 기업이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비즈니스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서울원이 완공되면 옌자오도 점차 베이징 한인들의 새로운 주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 2012년 7월 27일 재북경한인회 이창호 회장 인터뷰.

국민들이 왕징을 벗어나고 있는 현상은 단지 한국인들이 분산되어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베이징 시내로부터 점차 베이징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탈왕징화'로 베이징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현상은 한국인들이 베이징의 주류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으로 한국인의 약화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족과 한국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왕징의 종족공동체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국의 경제성장, 모국 자원에 기대어 발전한 조선족 집단의 계층적 분화, 그리고 한국인의 위축된 경제 상황은 종족 집단 간 관계에 반영되어 종족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이취와 엔자오를 연구지역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의 분산과 다원화는 향후 한국인과 조선족과의 관계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족들은 왕징을 벗어나 안정적인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엔자오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두 집단이 같은 생활권에서 밀집해 살아가는 양상을 보일지 아니면 한국인 집단과 조선족 집단의 독자적인 사회 공간이 조성될지 후속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왕징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는 모국 경제를 통해 경제 생활을 영위해왔던 조선족의 한국인과의 공생관계에서 출발하였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조선족 집단의 성장, 도시공간의 분화와 함께 분산되고 있었으며 보다 중요하게는 한인 종족 집단 내의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한국인과 조선족의 이주로 한인 종족 간 형성되었던 초기의 강한 공생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의 베이징으로의 이주는

모국 경제에 의존적이었고 한국인의 보조 역할로 모국 경제로 편입해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국인과 자율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초기의 강한 공생관계라고는 하지만 동족 집단 간 친밀한 관계의 기반이 처음 출발지점에서부터 약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선족과 한국인 이주의 상반된 흐름과 특성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확연히 차이나는 집단 간 관계로 틀지어졌고, 모국 자본이 산출한 분절된 노동 시장으로 조선족들이 저임금-저숙련 직종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이주흐름은 조선족의 모국귀환에서 더욱 강화되어 한국인과 조선족의 관계는 동족 집단 간의 공생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나뉜 고용-피고용의 관계 속성이 강했다. 이 상황에서 두 집단 간의 접촉이 증가될수록 동족 상호간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쌓였고 동족집단 간의 분리는 심화되었다.

또한 재중한인의 초국가적 종족공동체는 빠르게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거주국의 경제 성장으로 점차적으로 종족 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던 왕징 코리아타운을 벗어나는 탈왕징화의 현상도 가속화되었다. 탈왕징화 현상은 베이징의 외곽지역으로 크고 작은 코리아타운이 생겨나면서 한인들이 분산되어 거주하는 양상을 지칭한다. 이전의 왕징 지역에서 누렸던 경제적 차익의 효과나 동족 관계에서 누렸던 편익의 효과 등 동족 하위집단 간 사회적 관계를 통한 로컬적 자원 확보 효과가 퇴색하면서 초국가적 종족공동체에서 빼곡히 모여 살던 한국인과 조선족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찾아가고 있다.

많은 소수 종족의 이주자들이 거주국에서 거주지의 격리나 분리를 경험해왔다. 흑인의 경우 거주지의 격리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가장 성공적으로 백인 거주지로 진입하여왔다. 이렇듯 거주지의 변화양상은 이주자들의 거주국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이동을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의 한인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베이징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탈왕징화'라는 현상은 한국인들이 베이징의 주류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현상으로 한국인의 약화된 경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 參考文獻 >

- 강진석, <베이징 '왕징(望京)' 코리아타운 지역의 韓-中'異文化' 갈등요소와 해소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집, 2007.
- 김강일, <남북통일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의 역할>,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1998.
- _____, <한반도 평화정착과 재중동포사회-중시돼야 할 조선족사회의 통일역할>, 《통일한국》 273호, 2006.
- 김윤태·안종석, <중국의 신진족과 한인타운>, 《중소연구》 22권, 2009.
- 박광성, <세계화시대의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재외동포와 남북협력>, 《제 6회 동북아코리아네트워크국제회의 자료집》, 2007.
- 백권호, <재중 한국계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현지화 실태조사>, 『국제학논총』 6집, 2001.
- 백권호 외, 《중국 종합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2010.
- 예동근, <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 전환 과정하의 종족 공동체의 형성: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예성호·김윤태, <'초국가주의 역동성'으로 본 재중 한국인 자녀교육 선택에 대한 연구 -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68집, 2014.
- 윤인진, <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청도 사례연구>, 《재외한인연구》, 제13호, 2004.
- 정중호, <왕징모델(望京模式): 베이징 왕징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분화>, 《중국학연구》 제65집, 2013.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03-2011.
- 중국통계청, 《중국 인구센서스》(www.stats.gov.cn).
- Richard D. Alba, and John R. Logan, <Minority to Whites in Suburbs: An Individual-level Analysis of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93)
- Richard D. Alba, John R. Logan, Brian J. Stults, Gilbert Marzan, and Wenquan Zhang, <Immigrant Groups in the Suburbs: A Reexamination of Suburbanization and Spatial Assimilation>, 《American Sociological

- Review》, Vol. 64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99)
- Thomas Faist, <Developing Transnational Social Spaces>, In Ludger Pries (ed.),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Routledge, 1998)
- Di Fang, and David Brown, <Geographic Mobility of the Foreign-born Chinese in Large Metropolis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3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 1999)
- Jeong Jong-Ho, <Transplanted Wenzhou Model and Transnational Ethnic Economy: Experiences of Zhejiangcun's Wenzhou migrants and Wangjing's Chaoxianzu (ethnic Korean Chinese) Migrants in Beij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3 (Routledge, 2013)
- Pyong Gap Min, 《Ethnic Solidarity for Economic Survival》(Russell Sage Foundation, 2008)
- Douglas S. Massey,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69,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5)
- Min Zhou, and John R. Logan, <In and Out of Chinatown: Residential Mobility and Segregation of New York City's Chinese>, 《Social Forces》, Vol. 70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中文提要 >

本文企圖以北京的望京韓國城為例，探討韓中之間跨界韓人的遷移經驗，由於族群共同體分散現象的浮現，特別是關注在望京地區韓人族群共同體的變遷。在九零年代韓人族群共同體形成以來，朝鮮族跟韓國人的共生關係越來越弱化，韓人密集居住地也逐漸從望京分散到郊區。本文以對韓國人和朝鮮族深入訪談資料，田野，政府文件，與新聞報導資料來了解與分析。透過因為韓人大規模的遷移現象而區分出韓國人與朝鮮族的不同的遷移軌跡，作者並指出望京的韓國城是如何形成的，以及韓人居住地的郊區化如何隨著移民接受國的快速經濟發展而出現，此在內面韓人群體的階層化與同族疏離關係變的扮演了重要的角色。此一脈絡，對韓人居住地的郊區化具有學術上的涵意，在移民研究中種族居住地的隔離或者同化被可解釋為社會移動的指標—社會地位上升或者下降。北京韓國城的去望京化同時受到都市空

間的分化與韓國跨國企業的遷徙去向的影響。

關鍵詞: 北京韓國城, 居住地, 族群共同體, 同族關係, 郊區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31.	2015. 1. 19.	2015. 1. 24.	2015. 2. 17.	2015. 2. 28.